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0월 13일 (제127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동차가 액셀러레이터만 밟는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핸들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정지선 앞에 설 수 있다. 어디 그뿐이랴. 방향지시등이 있어야 우회전, 좌회전할 수 있고, 라이트가 있어야 밤에도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와이퍼가 있어야 빗길에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이것 말고도 기름도, 윤활유도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각각 일을 잘 해낼 때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누구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소속된 모든 자들이 단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히 해낼 때 일의 성과가 크다.

이것이 12차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던 이유다.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성회를 위해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승리했지만, 거기에 특별행사를 담당한 자들이나 밤을 새워 단을 설치하신 분들, 그리고 실무진들, 전국에서 집회에 참석해준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기도성회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예수중심교단의 교역자들과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덕분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라고, 감동받으시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셨겠습니까(시94:9).

우리는 대한민국이 평화통일로 가는 교량의 12번째 교각을 설치했습니다. 언젠가 이 다리가 완공되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기도로 놓은 이 다리를 건너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칠월칠석날 까마귀와 까치가 몸으로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했듯, 우리의 애쓰고 힘쓴 기도가 지금은 갈 수 없는 그곳에 데려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운명의 주인이 되자

먼저 '제12차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집회 준비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충성 봉사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시청광장에 함께 모여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2013년 부천실내체육관의 첫 평화통일 기도성회 이후 잠실실내체육관, 대구 실내체육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서울시청광장 및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등 12차에 걸친 모든 기도성회에서 일관되게 기도해온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산에서나 들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중심교단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에 주신 사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세에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외세에 의한 것이었고, 해방 후의 국가적 운명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습니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외세에 의해 휘둘리다가 정전협정에 참여조차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70여 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순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선진국 대열이 들어섰고,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고 개척해나갈 힘과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고 심지어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만, 사실 이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있는 마당에 마냥 긍정적인 여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한반도에 현상 변경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 지역을 누가 차지해야 옳으냐'고 질문한다면 백이면 백 '우리'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한 우리의 국제정치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그들의 민족적 운명 결정에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서독의 강력한 경제력과 국제정치적 역량에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기에 비록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르느라 잠시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통일 독일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적 순간에 우리 스스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나 침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평화적 통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역사에 중심에 서자!'고 강조하실 때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미래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성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40일 작정기도를 통해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고, 또한 기도의 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호주 시드니 집회

10월 28일~11월 5일,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6:1~6)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저에게는 큰 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꿈만 꾸고 있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저는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전 세계를 교구화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서예가가 써준 '세계교구(世界敎區)'라는 글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15년, 하나님은 제게 명성(名聲)이란 두 글자를 이상 중에 보여주셨고, 저를 세계로 내보내셨습니다.

국내에서 집회하면서 '이단이네', '우리 양을 다 가져가네.' 별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야말로 가시덤불만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낯설고 물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눈을 감고 지나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첫 해외 집회지인 일본에 갈 때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성경만 들고 갔던 일, 캐나다와 미국에 입국하면 죽인다는 협박 사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고 입국 금지당한 일, 키르기스스탄에서 KGB에 조사를 받고,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재판받고 추방된 일, 러시아 호텔에서 가스를 들이마시고, 시베리아 호텔에 경찰이 난입한 사건, 호텔 테러 사건, 에스토니아 자동차 전복, 칠레 고속도로 사고, 우크라이나 비행기 사고, 멕시코 호텔 잠자리에는 왜 이다지도 빈대가 물어대던지…, 아르헨티나, 가나에서 스태프의 비자 도난 사건, 오키나와 모살 사건, 과테말라 모기에 물려 몸은 붓고 부스럼 긁어대며 웃고 울던 세월…. 어디 사건만 아롱다롱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롱이다롱이였습니다. 너구리 같은 자, 늑대 같은 자, 여우 같은 자, 돼지 같은 자, 구렁이 같은 자….

그러나 저는 오직 땀 흘리며 땅을 개간했고, 거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목회 40년에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을 통해 전 세계 목회자들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으로 불러들여 목회자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꿈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켜가며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밖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선교의 교두보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아만 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고전 4:11~13)라고 탄식 아닌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말씀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둘째, 이 나라의 평화통일이 저의 확고한 꿈입니다. 어디 이것이 저만의 꿈이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 이 꿈을 주시어 찬양곡도 짓게 하셨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여, 아름답게 피소서/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오 주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영원히 피소서, 사랑의 꽃으로' 또한 2016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있던 새벽에, 하나님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37:16~17)는 말씀을 주시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듯,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떡해요?'라고 묻기는 했지만, 저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는 어떤 탈출구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중동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생지옥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열강의 신무기 시험장, 경연장이 되고 말 것이고, 재래식 무기 처리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도권싸움에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까요? 천만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는 적과의 동침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국방력을 키워야죠. 내 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 손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연 것입니다.

우리는 2013년 부천실내체육관의 첫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시작으로 잠실실내체육관, 대구실내체육관, 그리고 서울의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등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씨를 꾸준히 뿌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과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화분에다 수박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손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녀에게 매일 물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던 그 화분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탁구공만한 수박이 열립디다. 손녀가 신기한 듯 제게 뛰어와 "할아버지, 수박이 열렸어요." 하길래, "씨를 심으면 나는 거야."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평화통일이라는 씨앗을 심었으니 머지않아 우리에게 꿈같은 평화통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은 우리가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시126:1)라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12차까지 했는데 왜 아직 통일이 안 오냐? 북한이 더 난리다."라고 말하는데, 열매가 맺고 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신했다고 아이를 바로 낳나요? 요셉이 곡식 단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던 꿈의 씨를 심은 지 13년 만에 열매를 땄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의 씨를 25년 만에 열매로 거뒀습니다. 저도 '명성(名聲)'이라는 씨를 마음밭에 심고 20년이 흘러서야 열매를 땄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쥐덫에나 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됩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와 기다림 끝에 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온 미숙아는 건강을 염려해야 하듯, '일찍', '빨리'가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꿈같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씨를 뿌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백두산에 가서, 대동강가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 동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문화와 도덕적인 수준과 또 외모로 풍기는 품위에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다. 오직 영으로 그를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 마치 바다의 깊고 낮음이 수면 위에는 나타나지 않고 수평면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공평을 영적 수준에 두고 계신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누구는 훌륭하고, 또 누구는 부족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를 지극히 부족한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사울왕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맘에 합한 자"라 하셨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많은 병기와 군대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수만 군대를 상대하여 단지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러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물속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장사 지내버렸다. 우리 과거의 지식도, 명예도 모두 함께 묻어버린 것이다. 과거의 경험과 인격과 배경은 모두 물속에 장사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애당초 죄인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며 은혜받은 자라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을 가까이 접근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는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주님도 자신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공평하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길 원하는 신앙의 동질성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교단이 주님의 관심과 사랑의 중심에 있음을 자부한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영생에 이르는 길 ::

천국 마일리지

공예배나 교구예배, 또는 기도모임을 위해 일주일 내내 차량을 운행하여 성도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라고,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보니 매일 차량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꾸준히 기도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루는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늘 기도하러 오시던 권사님이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못해서 걱정되기보다는 운행이 줄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여느 때처럼 차로 권사님들을 모시고 기도처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타고 가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차량 운행을 많이 하니까 하늘의 상이 무진장 많겠어요.."라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지!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마일리지처럼 적립을 해두었다가 반드시 그날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시잖아!' 잠시나마 번폐스럽게 여기고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날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천국 마일리지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마일리지는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기쁘게 헌신하여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최성경 전도사

:: 빛과 소금 ::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지난 6월에 이사 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집 상태가 좋아서 부동산에서는 금방 나갈 것처럼 얘기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아도 '또 그냥 보기만 하고 가겠지.' 싶은 마음마저 들고, 매일 기도는 했지만 답답했다.

'때가 있겠지.' 생각하면서도 4개월째 접어드니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고민하던 중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크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다. 그동안 방언기도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어서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매일 방언기도를 하면서도 그 힘을 알고만 있었지 100%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전보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면서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고, 다 이루셨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루 이틀 지났을까 어떤 부부가 오전에 집을 보고 갔다.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잠시 합심기도를 하고 '오늘 집을 보고 간 사람이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방언기도를 하는데 '나는 허리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부동산에서 남편 전화로 연락이 왔고, 믿음의 선포대로 그분들과 매매계약을 해서 11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서 빨리 응답받는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방언기도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우리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졸개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쳐 떠나간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즉,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면 된다.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걱정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일을 통해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지금 알고만 있는 것인가? 진실로 믿는 것인가? 한 번 점검해보자!

송지혜 집사

:: 생명의 말씀 ::

공격형 신앙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이다. 특히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공상태가 없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공격적이어야 한다.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도 공격적으로 싸워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려 공격적으로 행동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론으로만 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신 실천가셨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변혁되었다. 복음의 확장성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초월적으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역사 속에 직접 내재하셔서 섬세하게 행동하시는 양면성을 다 가지셨다. 복음의 정신이 그러하기에, 당신의 형상인 인간도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기를 말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던가? 그저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피해 다니는 종교인들이 아닌,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고 행동했던 사마리아인이었다.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눅10:37).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안팎으로 혼란스럽다. 안보 문제, 그리고 동성애 문제로 기독교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시청 앞 광장에서 드러냈다.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문화'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진리를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과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거짓 진리로 무장한 기독교 정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창조주를 대적하고 제거하는 문화를 만연케 하려 하니 또한 통탄할 노릇이다. 그런 세속문화의 법제화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복음을 가진 자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다니지 않는다. 강도 만난 대한민국 앞에서,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마음껏 누리며 호흡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말이다.

송직화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통신 보약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군대 보낸 아들을 둔 부모는 입대 후 며칠 간 속앓이를 한다. 항상 옆에 있던 아이가 험한 군대에 간다고 하니 보고 싶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 어떤 엄마는 텐트를 쳐놓고 같이 고생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처방이 있는데, 바로 통신 보약인 주말에 오는 전화라고 한다. '잘 있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는 것이다. 듣기만 할까? 전화로 "뭐 필요한 것 없니? 말만 해." 세상 것 다 팔아서 사줄 마음으로 사랑이 절절 묻어나는 말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앓이를 느껴본다. 강 같은 평화를 주고 싶고, 구하는 대로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신 보약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은 이사야서 말씀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완고함, 즉 고집을 꺾고 이제 주님께 나가서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을 느껴보지 않겠는가? 완고함을 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온다. 평화통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단의 희생과 부르짖음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 우리를 보고 싶은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8~10).

이제 그 아버지께 나가 내게 필요한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통신 보약을 드려보자. 아버지가 "네가 구하면 줄게. 다 갖고 있어. 찾으면 찾게 해 줄게. 다 알고 있어. 두드리면 열어줄게. 그 열쇠는 내게 있단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신다.

우리가 9일 통신 보약, 기도를 올렸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평화통일을 이루어주실 뿐 아니라 김일성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안문광장에서 예수를 증거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최연식 목사

Good News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항우 장수도 죽었고, 불로초를 먹었다는 진시황제도 죽었으며, 가장 오래 살았다는 므두셀라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언젠가는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므로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위험합니다. 미리미리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험은 떨어지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면 진학을 포기하거나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뒤에는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빛이 되리라 ::

고귀한 자유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는 운동 중에 수영이 있다. 더운 날 시원한 수영장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처음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레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가난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가. 그런 곳이 아닌 대한민국 같은 자유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억류된 한 통역사를 미군이 구해오는 이야기다. 영화 곳곳에 탈레반의 공포 통치에 두려워 떠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시로 내전이 일어나며 총과 칼이 번뜩이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란 찾아볼 수 없었다.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성회가 우리나라와 후손을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일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번이 12번째 보험료를 내는 것이라고도 하셨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일이 있다. 내가 알기에 보험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고 끝까지 완납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도중에 보험료 납입을 멈추면 실효되고 결국 해지되어 더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일이다. 언제까지? 바로 보장과 혜택을 받을 때까지 말이다. 즉, 평화통일의 응답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 고귀한 자유가 북한 동포에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북녘땅에 온전히 전파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환절기 감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법은?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무더위는 가셨지만, 쌀쌀한 날씨로 환절기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심한 감기로 인하여 폐렴에도 걸리기 쉬우니 감기 초기에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 예방으로는 외출 후 손을 씻거나 입안을 자주 씻어내는 것이 좋으며, 서늘한 공기에 노출을 가급적 피하고, 과격한 운동은 피하며, 운동 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는 아니지만 몸이 으슬으슬하고 평소보다 춥다면 따뜻한 쌍화탕을 복용하고 따뜻하게 자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형방패독산이나 인삼패독산을 약국에서 구입하여 감기가 발병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감기 초기 증세가 몸살이 주된 증상이라면 갈근탕을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이 주된 특징이라면 인후렉신(은교산)을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가 주된 특징을 보이는 감기에는 감기약과 곽향정기산을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빠릅니다. 감기가 거의 끝날 무렵 기침이 오래 가며 잘 낫지 않을 때는 경옥고나 맥문동탕을 1~2주 복용하면 폐에 수분이 채워져서 마른기침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체질에 따라 소음인은 감기에도 소화 기능과 체력에 도움이 되는 생강차, 계피차, 인삼차가 감기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열이 있는 소양인은 평소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녹차나 옥수수수염차가 면역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태음인은 율무차나 오미자차 등이 좋으며 춥지 않은 실내에서 땀을 꾸준히 흘리는 것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간절기 건강에 유의합시다.

Dr. 설재현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투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